

◆ 광고

1. 오후 예배 찬양은 **할렐루야 찬양대**입니다(오후2시, 소망관).  
2. **담임목사 위임 및 은퇴식**  
▶일 시: 11.5(토) 오후 2시 ▶장소: 대전신일교회당  
3. 추수감사절 각 기관별 성경퀴즈대회(열왕기상·하)  
▶일 시: 11.20(주) 오후 예배 후 ▶참가비: 2만원(오승엽집사)  
4. 연합 여전도회에서 **사랑의 헌옷을 모으기 운동**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교인동정

- \* **생일축하**: 김연태, 김희경, 우성한, 윤순영, 이정자, 황안튀김반  
\* **식사대접**: 박영숙8집사/ 지난 장례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 **결혼**: 정지민군(2,3청년회)과 진미영양(2,3청년회)  
▶일 시: 10.29(토) 11시50분(교회출발 11시30분)  
▶장 소: 파라스웨딩홀2층(북합더미널 맞은편)

◆ 교회기도제목

1.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아 천국을 전파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2. 말씀의 교제가 풍성하고 사랑과 성김으로 가득한 건강한 목장모임이 되게 하소서.  
3.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과 수험생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옵소서.  
4. 이 지역사회의 칭찬 받는 교회되게 하셔서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게 하소서.

◆ 모임 / 청지기안내

이번 주 청지기		담당	9월 청지기	담당자	
주일 새벽찬양	이번주	제8여전도회	안내	1부	박영숙A, 임희자
	다음주	제1남전도회		2부	정영주, 신선화
수요찬양		1청년목장	헌금	1부	박영숙A, 임희자
식당봉사		제7여전도회		2부	이승효, 오승엽, 이진석, 광복님, 주정주, 하문숙

◆ 10월 교회행사

- 2일/ 신일비전현신예배, 정기제직회 • 9일/ 각 기관 월례회  
• 10~11일/ 정기가을노회 • 16일/ 제8여전도회, 1청년회 현신예배 • 30일/ 정기당회

1부 : 오전 9시 인도 권 칠 현 목사  
2부 : 오전11시 설교

♣ 사도신경..... 다같이

♣ 찬 송..... 다같이

23장  
38장  
1장

기 도..... 1부/박근용 장로  
2부/양문주 장로

성경말씀 ..... 인도자

시편119:105 (구 P895)

찬 양 ..... 1부/호 산 나 찬양대  
2부/할렐루야 찬양대

말씀선포 ..... 설교자

주야로 묵상합시다

기 도..... 설교자

찬 송 ..... 200장 .....다같이

헌 금 .....다같이

감사와 축복 ..... 인도자

♣ 찬 송..... 주기도문송 .....다같이

♣ 축 도 ..... 설교자

광 고 ..... 인도자

✚ 다음주 기도 1부/원용국장로  
2부/우성한장로

♣ 표는 일어나 주십시오

오후 3시 인도 설교 백 진 국 강도사

예배선언 ..... 인도자

다함께 찬양을...

기 도 ..... 오승엽 집사

성경말씀 ..... 인도자

누가복음 5:1~11 (신 P95)

찬 양 ..... 할렐루야 찬양대

말씀선포 ..... 설교자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찬 양 ..... 205장 .....다같이

광 고 ..... 인도자

축 도 ..... 담임목사

✚ 다음주 기도/ 김영민 집사

오후 7:30 인도 설교 권 칠 현 목사

목 도 ..... 다같이

찬 송 ..... 308장 ..... 다같이

기 도 ..... 송명남 집사

성경말씀 ..... 인도자

사사기16:1~22 (구 P391)

말씀선포 ..... 설교자

삼손의 실패 그리고 은혜

목장찬양 ..... 1청년 목장

축 도 ..... 설교자

기 도 회

✚ 다음주 찬양/ 여5,6 목장

✚ 다음주 기도/ 김선옥 집사

No 42. 2016. 10. 23

강성우(오이진), 김나경, 김선화, 김영민(한현숙), 김춘복, 박석문(정인선), 박영숙A, 박희나, 배시범(장성미), 박진국, 백향신, 송정희, 신금순, 신동명(강경숙), 안재경(장은숙), 우다희, 우수완(유지수), 우현성, 유태한, 이도화, 이태곤(엄경미), 정재안, 정홍재(김수희), 채재규, 최원나, 함돈수(곽정자), 함정혁

강성우(오이진), 강매림, 김철원(이지영), 김준자, 강하진, 권철현(박춘희), 김영권(정영주), 김선옥, 김민태, 김재홍(한영자), 김종남, 김진성(윤기미), 김춘복, 남동준(윤현숙), 박귀윤(곽복남), 박석문(정인선), 박순국(조수정), 박윤서, 박은성, 성형근(윤송호), 소재익(김미희), 심하숙, 안재경(장은숙), 안진성, 양문주(권유선), 오승엽(김영희), 우다희, 우현성, 원용국(김복근), 유미하, 이기홍, 이성중(신하숙), 이옥영(김기숙), 이종관, 이태곤(엄경식), 정국근(이경미), 정종재(김수희), 최명준(한은정), 한영실, 한돈수(곽정자), 함정민, 무명

강성우(오이진), 권철현(박춘화), 임병권(정영주), 김영민(한현숙), 김진승(윤라미), 김춘복, 박근용(최윤자), 박성용(이혜운), 엄기준(성영숙), 우다희, 우현성, 이태곤(엄검지), 정옥근(이경미), 정인택(이정숙), 정대수(김정희), 정홍재(김수희), 채재규

김대윤(박채리), 김명권(정영주), 김춘복, 우다희, 우현성, 정홍재(김수희), 채재규

강성우(오이진), 정옥근

## 강성우(오이진)

## 박석문, 정인선

초원	목장	모인곳	출석	헌금	성경	다음장소	초원	목장	모인곳	출석	헌금	성경	다음장소
남초원	1 김종남	교회	8	32,000	390	교회	여3초원	5 김채욱	교회	1	13,000	20	교회
	2 강일창							교회	2	6,000	38	교회	
남초원	3 양문주	교회	2	10,000	12	교회	여4초원	7 박복남	교회	4	18,000	37	교회
	4 우성환	교회	3	15,000	40	교회		8 구남량	교회	4	20,000	60	교회
남초원	5 남동균	원흥국	2	10,000	25	남동균	여5초원	9 김복금	안재경	2	3,000	10	교회
	6 안재경	교회	1	5,000	40	교회		10 함현숙	교회	1	5,000	20	교회
남초원	7 오승엽	교회	1	5,000	10	교회	여6초원	11 윤현덕	교회	4	6,000	27	교회
	8 소재익	교회				교회		12 장은숙	교회	3	6,000	10	교회
여1초원(실버)	1 김명자	교회	3	13,000	170	교회	여7초원	13 신윤경	광정자	2	8,000	27	교회
	2 김명숙	교회	5	14,000	150	교회		14 이경미	광정자	3	17,000	30	교회
여2초원(실버)	3 권월성	교회	3	11,000	170	교회	여8초원	15 오이진	엄검지	4	5,000	12	윤송희
	4 정채순	교회	4	12,000	90	교회		16 김춘복	교회	3	10,000	30	교회
							1청년	청년	박진우	교회			교회

어느 고등학교의 교양선생님이신 장로님께서 중병으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술실에 들어가기 몇 시간 전에 담당의로부터 병이 너무 위중하기 때문에 자칫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장로님은 앞이 캄캄하여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하려고 해도 두려움에 질릴려 모든 감각이 마비되어 입술조차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정해진 수술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병상에 누워 수술실에 들어가 눕기 까지 길지 않는 시간동안, 자신의 삶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장로님은 어머니 태동에 있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은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중직자였고 학교에서는 존경받는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잘 믿는 줄로 알았는데,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없는 무기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구절의 성경 말씀이 어렴풋이 생각났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이사야41:10).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한순간 얼음 동상같이 마비되었던 몸과 마음이 녹아 움직이기 시작 하였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나니 또 다른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났고 계속 해서 말씀을 암송하고 나니 마음에 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기도할 마음도 생겨서 기도하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수술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기억난 성경 구절들은 어릴 때 유년주일학교에서 암송한 것들이었습니다.

건강이 회복된 후 장도넬은 자기를 살린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을 암송한 덕분이라고 하나님께 항상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어디를 가시든지 아이들에게 성경을 많이 암송하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네비게이트 선교회를 창시한 ‘도슨트로트먼’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래 기억하기 위해 시간을 투자해서 성경 구절을 암기하는 것 보다 더 유익한 방법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실제 그는 네비게이트로 60구절을 만들어 암송을 통한 훈련으로 많은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영혼의 양식 생명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듣기, 읽기, 연구하기, 묵상하기 그리고 암송하기입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암송을 하면 여러모로 유익한 점이 많습니다. 간단하고 원론적인 말이지만 되새겨봅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암송하고 산다는 것은 신용카드 몇 개를 소지하는 것보다 더 마음 든든한 일이 아닐까요?